

요약

공동체공간, 자율성·공공성 확대로 자립성이 확보되는 구조 마련해야

서울시, 2012년부터 주민주도 공동체공간 총 331곳 조성 지원

공동체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가치와 실천을 확산하는 물리적 거점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공동체공간의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부터 다양한 공간지원사업으로 총 331개 주민주도 공동체공간의 조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원사업 별 모니터링에 따르면 대다수 공동체공간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원사업 보조금이 공간조성비와 사업비에 집중되어 있어 운영비 부담이 크지만, 수익이 불안정하고 이를 해소할 전문적인 지원도 부족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공동체공간 운영유지율은 2년차 88.2%, 4년차 69.1%, 6년차 48.3%로 연차가 늘어날수록 하락했다. 하지만 단순히 보조금을 늘리는 식의 정책 개선은 공동체공간의 자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는 74곳의 공간 운영자 면담조사와 289명의 회원 설문조사로 공동체공간의 운영실태, 주민들의 운영개선 의지와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여 운영 안정성과 자립성을 함께 담보하는 방향으로 기존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공동체공간은 자율성·공공성 높아 공적 지원 타당성 있어

공동체공간의 주요 운영원칙은 자율성(회원 참여와 민주적 운영), 공공성(공적 가치 추구하고 지역사회 공헌), 자립성(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자산 축적)으로 구분된다. 서울시 공동체공간들은 자율성과 공공성이 높은 편으로 공적 지원을 제공할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자율성에서는 평균 2.19명의 유급운영자 외에도 자원활동 회원이 평균 13.9명에 달했고, 70% 이상의 공간들이 운영위원회 중심의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전체 회원 대비 자원활동 회원 비율이 18.5%로 높지 않고, 민주적 운영구조의 범위가 아직 회원

까지 포괄하고 있지는 못한 한계도 있었다. 하지만 공간에 대한 회원들의 주인의식, 책임감, 운영참여 의사 등이 평균 4.04점으로 높은 편이어서 회원들의 운영 참여와 협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었다.

공공성에서는 공동체공간의 92% 이상이 외부에 공간을 개방하고 주민모임과 지역단체에게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하고 있었다. 회원들은 동네에 거주하는 3~40대 기혼여성들이 주류로 동질성이 높았지만, 마을사업 경험이 없는 새로운 주민(46.5%)과 공간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이웃이 늘어난 회원(77.1%)도 많아 구성원의 이질성과 확장성도 높았다. 이들은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이웃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평균 4.11점).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실천이 늘어났다(평균 4.06점). 공동체공간이 지역사회와 결부된 사회자본 증가라는 본연의 공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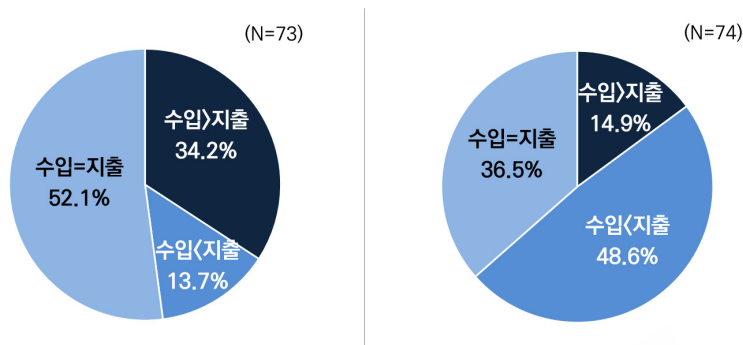
[표 1] 공동체공간 이용에 따른 사회자본 변화

구분		평균(점) (5점 만점)	긍정 응답률(%) (그렇다·매우 그렇다)
이웃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22	78.3
	알고 지내는 이웃이 늘어났다	4.15	77.1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생겼다	3.97	68.8
지역 사회 연계	지역의 현안과 정보를 얻는다	3.97	73.9
	모임, 지역행사 등 마을활동 참여 횟수가 늘어났다	4.15	75.8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10	77.1
	이 마을에 계속 살고 싶어졌다	4.03	79.5

자립성은 낮아...사업수익·회비 적어 운영비 총당 힘든 것이 원인

이에 반해 자립성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업무 부담에 비해 유급운영자 수가 적고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공간 유지비용이 일반 근린상업시설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었음에도 적자인 곳이 많았다. 수입에서 외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마을기업을 제외하면 사업수익과 회비가 각각 20%대에 그쳤다. 반면 지출에서는 사업비와 운영비 비중이 높았는데, 보조금 집행기준상 외부지원금이 사업비로 직결되므로 결국 자립성의 어려움은 낮은 사업수익과 회비로 운영비를 총당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재정상태가 적자인 곳이 표면적

으로는 13.7%였지만,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48.6%로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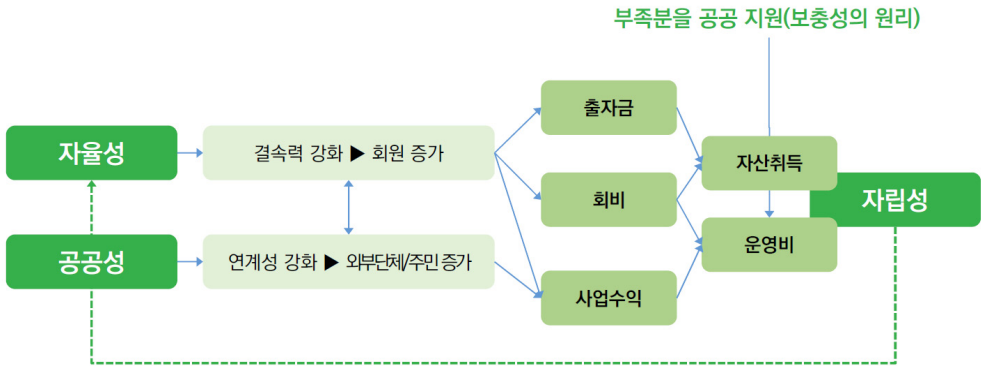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공동체공간 재정상태: 수입-지출(좌) 및 인건비 정상지출 반영(우)

공동체공간의 자립성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방식으로 해결 바람직

이러한 이유로 공간운영자와 회원 모두 공간 매입 지원이나 임대구조 개선보다는 임대료, 인건비 등 경상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들을 선호했다. 이를 위한 주민들의 자구 노력도 활발했다. 운영자의 76.4%가 운영개선 계획을 세웠거나 실행에 옮기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었다. 회원들도 공간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면 98.0%가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인당 평균 지불가능 출자금은 96.8만 원, 회비 또는 지출은 월 5.6만 원, 노동시간은 월 12.5시간이었다. 이를 공동체공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회비 또는 지출은 경상비용을 충당하기에 다소 부족했지만, 출자금과 노동시간은 임차보증금과 운영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공동체공간의 자립성은 자율성과 공공성의 성과가 자산과 수입으로 이어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공동체공간이 본래 취지대로 사회자본이 늘게 되고, 이는 곧 공간을 이용하는 회원, 외부단체, 지역주민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들의 지불가능한 자금을 출자금, 회비, 수입으로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면 공동체공간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 노력이 자립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림 2] 서울시 공동체공간 운영 안정성 개선 구조

지원기준 강화, 지원내용 확대, 추진체계 개선 등 3개 해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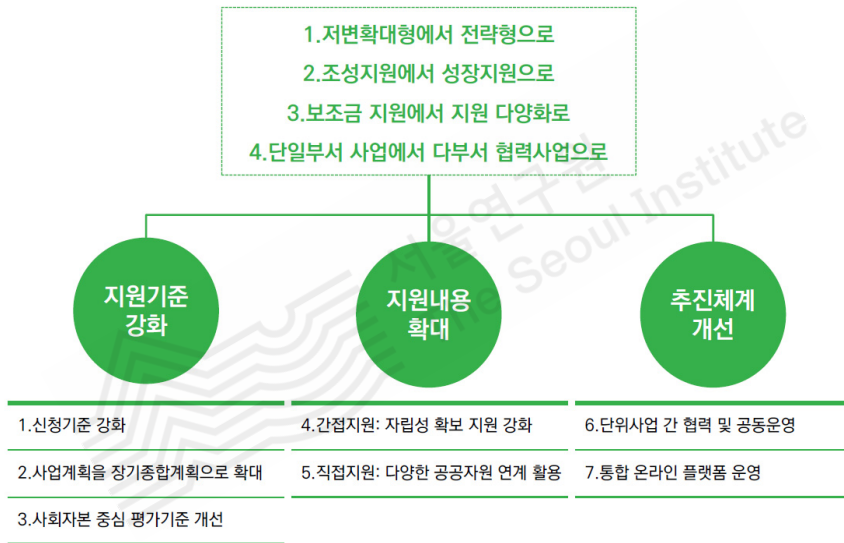
우리마을공간지원, 마을예술창작소, 마을기업 등 현행 서울시 공동체공간 지원사업은 이러한 구조를 촉진하고 보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실제 공동체 공간의 운영실태와 정책 수요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정책 개선의 기본방향은 ‘저변확대형에서 전략형으로’, ‘조성 지원에서 성장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에서 지원 다양화로’, ‘단일부서 사업에서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등 4가지로 정리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개선방안은 지원 기준 강화, 지원 내용 확대, 추진체계 개선에 따라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기준은 공간운영 역량, 공동체 자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아이템 등이 사전에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개선방안은 공간운영 경험, 자립기반, 자부담 등 신청요건 강화, 단기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계획을 장기 종합계획으로 확대, 사회자본 중심의 평가 기준 개선 및 적용 등이 있다.

둘째, 지원내용에서 간접지원은 그 동안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자립성 확보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지원은 다양한 공공자원을 활용해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간접지원은 사업 계획 확정 이전에 공동체공간 수요, 지역자원, 적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아이템과 공간 등을 파악하는 지역조사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을 내외부 협력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직접지원은 공동체공간의 자부담과 수익을 자립기반인 공동자산으로 우선 축적하고 경
상비용 부담률을 점차 높여가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엄격한 기준에
경상비용을 일부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보조금으로 불가능하다면 서울형뉴딜일
자리(인건비), 사회투자기금(임대보증금) 등 다양한 외부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셋째, 추진체계 개선은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이를 위해 지원사업 간
협력은 물론 외부 단체와의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공동 및 통합 운영이 가능한 부분으
로는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심사, 전문가 풀 운영, 통합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이
있다. 이를 위해 3개 지원사업의 민관주체와 외부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체공간 지원협의체
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림 3] 서울시 공동체공간 지원사업 세부 개선방안